

땅콩과 먹튀의 만남... 조원태는 투명경영 카드로 수성

(조현아)

(KCGI)

KCGI 지배구조개선 명분 지분매집 조 전 부사장 연대에 도덕성 흠집 단기수익 노린 사모펀드 민낯 드러나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간 표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와 반도건설 등 '3자 동맹'으로 압박에 나서자 조원태 회장은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지지를 얻으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주주 가치 제고를 강화하는 등 표심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왔던 KCGI는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내부 분위기가 조 회장에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명분마저 내던진 KCGI가 '적과의 동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 및 지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왼쪽부터 조원태, 이명희, 조현민, 조현아. /연합뉴스

구조 투명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허자산인 서울 송현동 부지와 비주력사업인 왕산마리나 매각을 추진한다.

또한 이사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향후에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이같은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오는 3월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결

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총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중요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데 '반 조원태 연합'이 전문경영인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주총에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KCGI는 결국 조 전 부사와 손을 잡으며 도덕성에 흠집이 가게 됐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한진칼 지분을 매집하고 나섰지만 '땅콩회항'·오너갑질 등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

다. KCGI는 이미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6개월 이상'이라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건도 상정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주총에서는 결국 실리를 택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로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유다.

양측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회장은 단 6.52%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에 재단 등 특수관계인(4.15%)과 한진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10%), 우호지분 카카오(1%)까지 확보하면 33.45%가 된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KCGI(17.29%), 반도건설(8.20%)과 지분을 합하면 31.98%다. 단 1.47%포인트 차이로 조원태 회장 측이 우세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던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자가보험·사우회의 지분 '3.8%'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근소한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4.11%)·소액주주 등의 결정이 향방을 가를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등으로 주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의미

다. 이에 따라 양측은 주총 전까지 주주 가치 제고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7일 시행되는 한진칼 이사회에서도 한진그룹 측은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주주 친화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진칼이 대대적인 주주 가치 제고안을 준비 중이란 후문이 지배적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미 조원태 회장 측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땅콩회항'과 오너갑질 등으로 대한항공을 위기에 빠뜨렸던 조 전 부사와 단기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사모펀드의 연합이 결코 대한항공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며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 회장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자율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던 움직임도 임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다. 아울러 지난해 IATA 총회를 직접 이끌고 조인트벤처 등 경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상존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네트웍스, 홈케어·렌트카로 성장

2019 매출액 3.2% 성장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미래 성장사업 중심 성장을 확인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3조541억원에 영업이익 1093억원을 거뒀다고 6일 잠정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3.2% 성장했다. 영업이익이 18.1% 크게 감소했지만, 홈케어와 모빌리티 수익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SK네트웍스는 최근 SK매직을 통한 홈케어와 렌트카 등 모빌리티 부문으로 사업 중심을 옮겨왔다. 2017년 21%에서 2018년 31%, 지난해에는 61%로 비

중을 크게 높이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정보통신사업도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통 ICT 디바이스 다각화와 인공지능 기반 중고폰 ATM인 '민티'를 출시하는 등 노력을 통해 8000억원대 수익을 지켜냈다.

손해는 일회성 요인에서 크게 발생했다.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중동사업 미회수 채권 손실 처리, 호주 석탄사업 철수 결정 등이다.

단, 손실이 잠재적 악영향을 해소하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는 만큼, 지속성장 기반을 더 확고히 했다고 SK네트웍스는 분석했다.

/김재용 기자

효성그룹,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회복

중 시장 프리미엄 섬유제품 판매 확대 베트남·인도 등 해외법인 실적호조

효성그룹이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되찾았다. 조현준 회장 취임 3년만이다.

효성은 (주)효성과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등 5개 주력사 2019년 매출액이 18조119억원, 영업이익 1조102억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처음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가, 불황 등으로 부진을 겪은지 3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효성은 중국 시장 프리미엄 섬유 제품 판매를 늘리고, 베트남과 인도 등 주요 해외법인 실적 호조와 자회사 수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효성은 취임한 지 3년째인 조현



효성 조현준 회장. /효성

준 회장이 글로벌 경영을 안착시키면서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자평했다.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는 'VOC경영'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봤다.

조 회장은 취임 후 글로벌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고객을 만나는 등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 등 주요 국가 최정상

과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주력했다. 효성티앤에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에도 조 회장의 글로벌 경영 효과가 컸다.

조 회장이 90년대 후반부터 주력해온 스판텍스 'C 프로젝트'도 기반이 됐다. C 프로젝트는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기획된 전략이다.

연구개발 성과도 가시화됐다. 미래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며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NF3와 폴리케톤 등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개선하면서 실적 향상 디딤돌로 삼았다.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간 2만 4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2000톤 규모 공장을 가동 중이고, 2월 중 2000톤 규모 라인 가동을 준비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벤츠 GLC 제치고 'GV80' 2월의 차 선정

한국자동차기자협회

5개 평가 항목서 평균 4.1점 기록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제네시스 GV80이 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가 뽑은 2월의 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후보 차량을 선발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 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차량 1대를 선정한다.

지난 달에는 메르세데스-벤츠 GLC와 제네시스 GV80이 2월의 차 후보에



GV80 주행사진.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제네시스 GV80이 20.3점(25점 만점)을 얻어 2월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 5개 평가 항목별로 1~5점 척도를 적용했으며, GV80은 5개 평가 항목에서 평균 4.1점(5점 만점)을 기록, 전체 항목에서 두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 출시

하나의 카드로 현대카드 M·레드 포인트 적립

기존 이용고객 의견수렴 혜택 개선

기아자동차가 더욱 강력해진 혜택으로 업그레이드된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M 포인트 적립은 물론 레드 포인트 적립, 차량케어 서비스 등 기아 레드 멤버스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지난 2017년 3월 최초로 출시됐다. 이번에 선보인 '기아 레드 멤버스



기아차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 출시.

신용카드 에디션2'는 기존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기존에 3등급으로 운영되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극장·아울렛 할인 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기호가 다를 수 있는 부가서비스 혜택 대신 포인트 적립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 성향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성운 기자 ysw@